



정교회주보

제2588호

2026년 8월 2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고린토 법정 유적 전경. 성 사도 바울로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 갈리오 앞에 섰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마태오 제9주일
성 스테파노스 보제순교자(이장)
(제8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 변모 축일 시기송 178
 - 사도경 : 고린토 전 3,9~17 (봉)194
 - 복음경 : 마태오 14,22~34 11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토 전 3,16)

[30회] 복음의 자유를 공인받다

이렇게 그는 여러 도시에서 맺은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협력 속에 제2차 선교 여행의 길을 마무리해 갔다. 그러나 고린토에는 아직 복음이 로마의 법정 앞에서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다.

바울로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하여 아카이아 지방 총독 갈리오의 재판석 앞에 세웠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를 종교적 논쟁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겠다 하며 고소를 기각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몰아냈다.(사도행전 18,12-17)

이 사건은 복음 전파가 로마법을 어기는 범죄가 아님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하느님께서 세상의 법정 안에서도 당신의 사도를 보호하심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바울로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길을 열어 간다.

거룩한 변모가 십자가에서의 고난으로 이어지다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神性)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요한 9,5)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요한 12,46) 이 빛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빛으로 보여주셨으므로, 제자들은 영광 속에 변모하시어 눈부시게 빛을 내는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루가 9,29)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마태오 17,2)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마르코 9,2-3)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해 죽을 것임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지 며칠 후(6일 혹은 8일 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곧 닥쳐올 주님의 수난의 시기에 당황해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 변모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마태오 17,5), 구약의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도 시나이산과 가르멜 산에서의 영광에 이어 다시 한번 더 하느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높은 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모를 통해서 제자들은 얼마 안 있어 주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에서의 수난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의 과정에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고, 교회는 8월 6일 주변보 축일이 지나고 40일 후인 9월 14일에 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이합니다.

프로스코미디는 무엇일까요?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1880-1956. 세르비아의 주교, 신학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프로스코미디는 무엇일까요? 이단자들에게는 이 예식이 없습니다. 프로스코미디는 성찬예배의 도입 부분이며, 하느님 나라와 우리가 만나는 예식입니다.

사제는 봉헌된 빵(성체빵, 프로스포라)에서 일정한 몫을 떼어내는데, 제일 먼저 '하느님의 어린양' 몫을 성반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에는 성모님을 기념하기 위한 몫을 떼어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들의 몫을 떼어내고, 이어서 세례자 요한을 포함한 예언자들, 사도들, 교부들, 순교자들과 수도자들, 고백자들, 자선 치료 성인들, 그리고 기적을 행한 모든 성인을 기념하며 각각의 몫을 떼어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인가요!

사제는 또한 살아 있는 정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몫을 떼어내며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

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의 몫을 떼어내며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예식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사라지고, 민족과 지역의 차이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오직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하며 참으로 하느님께 영광스러운 예식인지요!

마침내 성찬예배에서 준비된 신자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곧 성체성혈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체성혈이 끝나면 프로스코미디 때 기념했던 성모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의 몫을 하늘의 포도주, 곧 주님의 성혈이 담긴 거룩한 성작 안에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프로스코미디를 통해 누리는 만남이며 일치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의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프로스코미디** : 정교회에서 성찬예배를 시작하기 전 사제가 예비 제단에서 준비한 성찬 예물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예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희생을 재현한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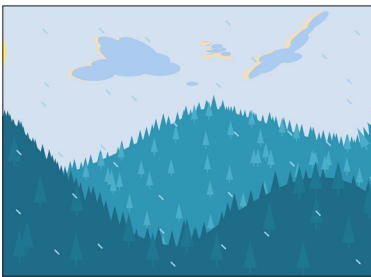
오는 목요일(8월 6일)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는 수도원 공동체의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6일(목)

구세주 변모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성모 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토) 성모 안식 축일을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을 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가 허용됩니다.

소 식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오는 8월 6일(목)에 축일을 맞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8:30 조과, 9:30 성찬예배 일정으로 축일 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오늘(8/2)까지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성당에서는 버스 대절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주일(7월 26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성찬예배 중에 5명의 예비교인이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세례자: Nam Evgeniy, Sadirov Amar, Diachenko Anna, Kim Leonid(유아), Khen Liya(유아)

■ 바로 잡습니다

한글 탁상용 축일 달력의 8월 2일 사도경 구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존) 갈라디아 3:9-17

(정정) 1고린토 3:9-17

영성의 샘터



겸손한 수도자

아주 겸손한 어느 수도자에게 사탄이 빛나는 천사처럼 나타났다. 그리고는 그를 교만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네가 많은 덕을 쌓았기에 너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겸손한 수도자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아직 죄 속에 살고 있어 천사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